**세션 1 요약**

**아이켄베리:**

* 동북아 지역의 안보상황은 현재에도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앞으로 더욱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 북한의 사태가 여전히 안정화되지 않고 있다. 국제사회 많은 국가들은 앞으로 4차 핵실험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며, 6자회담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둘째, 일본과 중국간의 영토분쟁 문제가 있다. 중국은 경제발전의 속도에 상응하는 지역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일본에서는 군국주의ㆍ민족주의가 발현하고 있는데, 이에 따라 군비확장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아베 총리는 역사문제에 관한 고착상태에서 탈출할 의지 및 창의력이 부족하다고 생각된다. 셋째, 역내 세력구도가 재편성되고 있다. 과거에는 미국의 헤게모니에 따른 질서가 유지되었지만, 현재에는 중국이 두드러지게 성장하였다. 아시아 지역의 주요국가들이 역내 세력구도에 새로운 강자로 등장하여 안보관계가 새롭게 형성되고 있다.
* 미국의 입장에서는, 협력을 통해 안정적 평화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이 약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원가꾸기에 비유하자면, 북한은 물도 많이 주고 세심하게 가꿔야 하는 화초이다. 제재조치를 계속하면서 경제협력을 지속하느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 한국과 미국은 역내 체제에 대해 더 많은 대화를 해야 한다. 즉, 4차 핵실험에 대한 준비뿐 아니라, 북한정권 붕괴 이후에 대해 한미 양국이 어떤 역할을 해야하는지, 장기적으로 어떤 안보협력체제가 필요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해야 한다.
* 비확산과 평화를 위하여 미중관계가 강화되어야 한다. 안보경쟁와 군비경쟁은 미뤄두고 협력관계를 강화하여 북한에 의한 위협을 감소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중국은 아시아 지역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왕이저우:**

* 동북아 지역에서 냉전후체제로의 큰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 과거에는 양극체제로 인한 갈등과 전쟁의 위협이 두드러졌으나, 탈냉전에서는 각 강대국간 조율이 강화되고 있어 대규모의 전쟁 위협은 크게 감소하였다.
* 북중관계는 과거의 혈맹관계에서 일반관계로 전화되고 있다. 한중관계는 정치ㆍ사회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경제ㆍ문화적 측면에서 모범사례로 거론될 정도로 발전하였으며, 중국은 한국으로 우방으로 생각한다.
* 경제적 측면에서, 동북아가 세계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하고 있다. 한중일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발전을 어떻게 지속시킬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 1949년 이후 출생한 시진핑과 리커창 등 새로운 중국 지도부는 부채가 적고 글로벌한 비전을 가지고 있는 세대로서, 중국의 역할을 지역체제를 건축하는 주요한 설계자로 생각하여, 인접국들의 평화와 안보도 중시한다. 또한, 중국의 평화 및 한반도 평화는 안정된 미중관계가 전제되어야 한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
* 한반도 통일은 인내심이 필요한 문제이다. 한반도통일은 최소한 30년 이상이 걸리는 과정이 될 것으로 예측한다. 공격적으로 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오랜 기간동안 협력을 지향해온 중국과 대만과의 관계에서 시사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함재봉:** 6자회담에 대한 전망은 어떠하며, 과연 다자적 체제가 아시아에서 성립할 수 있을 것인가?

**아이켄베리:** 6자회담은 분명 발전된 안보협력체제로 탈바꿈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북한의 사태에 대한 즉각적인 해결책은 제시할 수 없더라도, 이른바 ‘정원가꾸기’를 통해 공통안보의 씨앗을 뿌리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일단 대북제재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다른 국가가 북한에 도움을 주어서는 안된다는 점과, 제재의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을 확실히 해야 한다.

**함재봉:** 6자회담에 대해 어떻게 전망하는지? 중국이 6자회담의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또한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아이켄베리의 주장에 대한 견해는?

**왕이저우:** 6자회담에 대해서는 중국 내부적으로도, 성과가 없어 전략적 부담이 된다는 입장과 중국이 중심이 되어 주도적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기회라는 입장이 병존한다. 대북압박에 대해서는, 북한의 딜레마가 무엇인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북한의 고위급 관료는 제2의 이라크가 되고 싶지 않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 비핵화를 위한 선결조건은 북한을 안심시키는 것, 즉 미국이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미국이 현재의 상황에 책임이 있다고 본다. 중국은 북미간에서 중재를 할 의향이 있으나, 미국의 입장이 매우 특수하다고 생각된다.

**함재봉:** 대북압력을 강화해줄 것이 중국에 요청되고 있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그로부터 얻을 수 있는 실익이 무엇인지 고민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한 요청의 반대급부로서 미국과 한국은 어떠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을지?

**아이켄베리:** 북한에 더 압박을 가한다면 정권 붕괴 등 예기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중국으로서는 국경의 동반자가 사라지고, 한미관계가 더욱 공고해지는 등 중국에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 수 있다는 우려를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이 그리는 통일 한반도의 청사진은 북한에게도 매력적인 것, 즉 관련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일이후 안보체제에 대한 확실한 보장 및 군대 배치 등과 관련하여 구체적이고 확실하게 제시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다. 독일 통일시에 고르바초프가 재확인한 9개 항목이 통일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과 마찬가지이다. 한편, 중국은 한반도 통일에 대해 마치 거부권을 가진 것 같은 위치에 있다. 따라서 100% 확약해줄 수는 없어도, 적어도 이 시점부터 중국과 통일한반도가 포함된 이 지역에 대한 비전을논의하기 시작해야 한다.

**함재봉:** 가장 이상적인 또는 만족스러운 미래의 동북아 안보 체제의 모습은 무엇이 될 것인가? 아산정책연구원에서는 이란과 북한 각각에 대한 제재조치를 비교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데, 북한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제재시스템 자체가 없었다는 것이 매우 충격적이었다. 북한을 협상테이블로, 나아가 핵포기 선언을 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중국이 북한제재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왕이저우:** 이란, 이라크와 북한은 다르다. 이라크애는 안보를 보장해줄 인접한 강대국이 없었지만, 북한의 중국이 있기 때문에 훨씬 안전하다. 또한 국제사회는 중국이 북한을 지원할 뿐 아니라, 강력한 징벌적 조치를 취한 바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다. 중국은 무기 관련 기술의 대북 수출을 금지하였고, 북한문제에 대한 안보리 결의에도 동참했다. 이러한 시도는 중국이 지역의, 나아가 세계의 리더의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험대로 작용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 문제 해결에 기여를 해야한다는 인식이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어쨌든 중국의 협력, 지원, 안보보장 등은 북한의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질의응답**

**바실리 미헤예프(러시아 IMEMO 부원장)**: 북한문제에 대한 한중 협력에 있어 가장 큰 장애물은 무엇인가?

* **(왕이저우)** 한국 국내 여론이 대북 강경조치를 원한 것은 이해하지만, 한국의 이전 정부에서 햇볕정책을 포기한 것이 중국과의 공조에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중국은 포용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입장이다.
* 또한, 한미간 특별한 관계 또한 중국에게 편안한 관계는 아니다.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고 싶다는 의사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양국이 서해에서 그렇게까지 대규모의 훈련을 강행한 것은, 경우에 따라서 중국에 불편함을 준다. 이는 2개의 블록으로 갈리었던 냉전시대와 같은 양상으로서, 신뢰구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존 에버라드 (前 주북한 영국대사)**: 북한 지도부가 핵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한 견해는?

* **(왕이저우)** 북한의 발언과 정책은 일관성이 떨어진다. 적어도 중국이 보기에, 북한은 종종 대화의 여지를 남긴다.

**스콧 스나이더 (전미외교협회(CFR) 한국학 선임연구원)**: 평화적이지 않은 방법의 비핵화가 진행된다면, 중국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 **(왕이저우)** 중국도 모든 가능성에 대한 대비를 하고 있는데, 전쟁에 대해서도 대비 해야할 것이고, 실제로 대비하고 있을 것으로 안다. 그러나 중국은 궁극적으로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목적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토고 카주히코 (교토 산교대 세계문제연구소장)**: 북한에 가장 중요한 것은 체제유지인 것으로 보인다. 미국이 일본과 전쟁을 끝낸 방법을 돌이켜보면, 일본도 이와 유사하게 천황체제 유지를 매우 중시했다. 북한에게 절실한 체제보장을 해줄 수 있는 것은 미국뿐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이는 일본정부 정책과는 반대되는 생각으로, 개인적이지만 현실적인 의견이다.

* **(아이켄베리)** 천황체제는 유지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미일간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아 비극적 결과가 발생했다는 점을 정확하게 지적했다. 그러한 점에서, 체제생존을 위해서는 핵을 포기해야한다고 인식할 수 있는 신호를 북한에 확실하게 줘야 한다. 북한의 체제생존 여부는 북한이 단계별로 절차에 따라 비핵화를 이행하는지에 달렸다. 북한은 중국의 산업발전 모델을 북한에 적용하기를 원한다고 여러 차례 언급하였는데, 이를 활용하여 자체적 생존을 위해 행동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 **(왕이저우)** 김정은이 아버지인 김정일과 비교해 어떤 방향의 정책을 선택할 것인지는 체제변화 여부를 가늠해보는 데 매우 중요하다. 쿠바, 싱가포르 등에서는 선대에 뒤이어 정책결정권자가 된 형제 또는 아들이 국가 거버넌스 체제를 크게 바꾼 사례가 있고, 한국에서도 박근혜 대통령이 아버지와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함재봉:** 김정은은 체제유지를 위한 명확한 전략 자체가 없는 것 같다. 6자회담 국가들이 아주 매력적인 지원을 많이 제공했지만 그 어떤 것도 효과가 없없다. 이것은 북한이 핵 없이 어떻게 국가의 위기를 탈출할 수 있을지에 대해 아무런 장기적인 전략이 없다는 증거일 수 있다. 왕이조 교수님이 언급한 일련의 사례는 외부의 영향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명확한 비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지만, 북한은 그러한 점에서 다르다.